

들끓는 오월 광주, '일베' '종편'과의 전면전

정치권·시민사회 '5·18 왜곡' 대응 본격화

민주당, 극우사이트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신청·소송
북한군 개입설 '종편' 프로그램 폐지·채널 반환 운동
'임을 위한...' 제창 막은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 시키기
광주시 '왜곡 대책위' 각계 인사 334명 매머드급 구성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보도와 극우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베스트'(이하 일베)의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및 모욕에 대해 정치권과 광주시, 시민사회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극우 사이트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물론 사이트 운영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는 물론 종편채널 해당 프로그램 폐지, 종편채널 심의 강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케이비 종합편성채널의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강기정 위원장 등 대책위원들이 방송사를 방문하여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또 종편채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황금채널 반환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종편채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종편채널에 대한 출연 자제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5·18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킨 극우 사이트 '일베'에 대해서는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5·18 역사왜곡과 국가문란과 관련해 국방부와 정무위, 방송공정성 특위, 교육문화위원회,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국민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시 5·18역사왜곡대책위 24일 공식 출범= '광주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책위는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팀 ▲5·18 역사 왜곡 폄하 저지시정 대책팀 5·18 정신계승 선양팀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역사 왜곡· 폄하 방지 대책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호남권 광역회의 의장단 공동대응
광주·전남·전북도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회의 의장단협의회는 22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종편과 누리꾼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하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호남권 광역회의, 5·18 왜곡 규탄=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광역회의 의장단협의회는 22일 전남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일부 단체와 종편채널의 도를 넘는 5·18 왜곡· 폄하와 관련해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오는 29일 해당 시·도의 원 전원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18 관련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공인된 사실인데도 일부 특정세력 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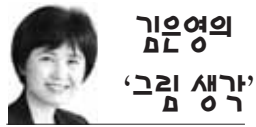
◇민변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구성=민변광주지부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2일 회의를 열고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광주시와 5·18 단체 등이 추진 중인 법적 대응



TV조선 항의 방문
민주당 최민희(왼쪽부터), 강기정, 진성준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TV조선 사옥에서 5·18민주화운동 보도와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임선숙·임태호·정인기·김정희·서일석·김정호·이철원·이상갑·김상훈·정우중·최정희 변호사 등 11명이 참여했다. /최민희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딸 위해 치마폭에 그린 다산의 애뜻한 父情



(29) 아버지

"바쁜 사람들도/군센 사람들도/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오월이 가장의 달이어서인지 가족의 힘, 아버지의 귀환 등을 다룬 연극, 영화, 소설이 대세다.

그림에선 어떨까? 속정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림으로 남긴 이로 다산 정약용(1762~1836)을 꼽고 싶다. 18년간의 강진 유배생활 동안 500여 권에 이르는 저술을 남긴 다산. 후대 학자들은, 다산의 귀양살이는 개인에게는 절망이었으나 우리 학술계를 위해서는 '별빛처럼 쏟아진 축복'으로 여긴다.

매 순간 시대적 모순을 들여다 보고 민초들의 삶을 함께 아파한 대학자 다산이었지만 자식 앞에서서는 조바심을 내던 아버지였다. 딸이 그리워 시를 쓰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아버지로



정약용 '매조도'

인해 벼슬길이 막힌 두 아들을 염려했다.

다산의 이러한 부정(父情)을 담은 그림이 '매조도(梅鳥圖)'이다. 비단 위에 그린 '매조도'는 그림과 시를 안배한 것으로 오른쪽에서 빨아 내린 매화가지에 두 마리의 참새가 앉아있는 봄날의 시정을 담아낸 예쁜 그림이다.

그림 옆에 작은 글씨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연유도 밝히고 있다. 어느 해인가 다산의 부인이 시집을 때 입었던, 붉은 빛이 바랜 헌 치마 여섯 폭을 보내온다. 다산은 이것을 잘라 네 점으로 만들어 두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바쁜 사람이 되라는 당부의 글을 엮어 보내고 남은 치마폭에는 시집간 딸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 두 마리의 새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즐겁게 봄날을 노래하듯 그렇게 딸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 다산의 애뜻한 염원이 잔잔하게 전해진다.

<광주비밀레지시부장·미술사박사>

빛의만평

- 김중두



온통 진드기 세상

“국민들은 깨어있다”

광주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만6000명을 넘어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자가 22일 오후 7시 현재 1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서명

에 참여하는 누리꾼들은 서울, 울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gju.go.kr) 메인화면 중간부분에 노란색 박스로 된 '임을 위한 행진곡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법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클릭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서명 운동

참여자 불과 이틀만에 1만6000명 넘어서

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시간 서명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은 성명·생년월일·주소·이메일과 함께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 개인 SNS계정과 연동해 '서명 추천하기'도 가능하다. 시는 서명운동 사이트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원곡

과 원곡 악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개인 SNS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 국민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온라인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가 논란과 관련해 정부부처를 강력 비판했다.

최근 새누리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중진 연석회의에서 "공직사회의 경직성 관행과 타성에 젖은 부처 간막이,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합창과 제창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져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메시지마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氣의 고장 영암군

달마지 선물세트

영암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영암군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달마지 선물세트 6호

■ 품목 : 들기름·참기름세트 각 350ml, 서리태·팥·차조·찰흙미·녹미·원미잡쌀 각 1kg, 고추가루 500g, 볶은깨 300g (박스규격 39×19×28cm) **130,000원**

1호 30,000원 (박스규격 26.5×10×21cm)
2호 50,000원 (박스규격 31×19×28cm)
3호 60,000원 (박스규격 31×19×28cm)
4호 80,000원 (박스규격 39×19×28cm)
5호 100,000원 (박스규격 39×19×28cm)

* 선물세트 품목이 조기 품절시 다른 품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원하는 품목, 가격으로 선물세트 조절가능.
* 각종행사 담배로 주문가능

건나물세트 1호

■ 품목 : 건나물 5종 (도라지·고사리·취나물·토란대·고구마순 각 100g) **40,000원**

건나물세트 2호

■ 품목 : 건나물 6종 [도라지·고사리·취나물·토란대·고구마순·박나물(호박나물) 각 100g] - 들기름 350ml 1병 - 들깨가루 300g **70,000원**

말랭이 선물세트

■ 선물세트 포장 가능

선물세트 50,000원 이상 **택배비 무료**

결제계좌
(농협) 652-01-006318 (기찬들쇼핑몰)
(농협) 652-01-00631808 (기찬정터)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달마지 선물세트' 의 판매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류세트

■ 품목 : 토하젓 420g, 전통된장 1kg, 찹쌀고추장 1kg **55,000원**

참기름·들기름 세트

■ 규격 (350ml 기준)
참기름 1병...26,000원
참기름 2병...52,000원
들기름 1병...15,000원
들기름 2병...30,000원
참기름·들기름 각1병...41,000원

빨간양파즙 (100%)

100팩 (팩당 120ml).....65,000원
50팩 (팩당 120ml).....35,000원



(사)영암군농특산물판매촉진단
(061) 473-2130/470-2809/2846
www.gichandle.co.kr 또는 '기찬들'